



2020년 11월 15일(제1008호) 연중 제33주일(세계 기년할 이의 날)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그 종은 왜 그랬을까?”

오늘 주일 복음을 읽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왜 한 탈렌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모진 분이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복음을 보면 주인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재산을 맡겼습니다. 또 종들의 능력까지도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종들에게 관심도 많고,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 종들에게 재산을 맡길 정도로 그들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 그런데 왜 한 탈렌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모진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 목상하던 중 오랜 시간 불편해했던 한 선배 신부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제가 신학생일 때 저희 본당 보좌신부님이셨습니다. 그 당시 전 저학년이라 하나하나 배워야 하는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신부님께 종종 지적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신부님께서 본당을 떠나신 뒤에도 가끔씩 마주치면 괜히 위축되어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동기가 그분 본당에 파견을 나갔는데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는 제가 그분 본당에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견 기간 동안 그 동기에게 들었던 말과 비교했을 때, 저는 동기만큼 인정받지도 못하는 것 같고, 신부님과 잘 못 지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파견 생활이 힘들거나 신부님이 힘든 것보다도 그 동기와 비교했을 때 제가 받고 있는 처사가 부당하게 느껴지는 것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내가 개보다 못한 게 뭐 있다고... 식별력 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참 사람 볼 줄 모르시네’ 하는 생각으로 인해, 파견이 끝난 뒤에도 괜히 그 신부님을 마주치면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때 제 모습, 누구와 많이 닮지 않았나요? 바로 주인을 모진 사람이라 했던 한 탈렌트를 받은 종입니다. 저도 그 종처럼 선배 신부님을 모진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이 뭐였을까요? 바로 비교,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질투였습니다. 그 신부님께서서는 저는 저대로 그 동기는 그 동기대로 대했을 뿐이었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 저랑 그 동기를 비교하지도 않으셨죠.

그런데 제가 동기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혼자 비교하고 질투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종도 아마 저와 같았을 겁니다. ‘주인이 나를 믿어주기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 볼 줄 모르는구만. 저 녀석에게 열 탈렌트나 주다니. 어쩐지 지난번에도 저 녀석을 더 챙긴다 했어.’ 하면서 마음속에서 주인을 모진 사람으로 여겼을 겁니다. 종도 비교에서 시작해서 질투, 원망으로 나아간 것이죠. 저는 훗날 ‘아, 내가 그때 비교를 했었구나. 그래서 그 신부님을 괜히 불편하게 여겼구나. 그리고 난 그 동기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랑과 인정을 받는 것처럼 보여서 질투했었구나. 내가 그 동기를 무시했었고, 나보다 못나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나보다 잘했었다고 혼자 판단하면서 그 선배 신부님을 미워했었구나. 내가 두 사람에게 참 잘못했구나.’라는 인정과 뉘우침의 시간을 가진 뒤에야 그 선배님을 편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종에게 일어난 일들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혼자 비교하고, 그래서 질투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진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미움은 황산과 같아서 그걸 품고 있으면 내 영혼도 큰 상처를 입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교했구나, 질투했구나’를 말이죠. 그러면 그 질투는 금세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아무리 뿌리 깊은 나무도 뽑아서 햇빛 아래 두면 말라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반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길 거리에 널린 잡초라 하더라도 땅속에 심겨 있으면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만일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나를 오랜 시간 괴롭힌다면 한 번쯤은 하느님 앞에서 목상해 보면 어떨까요? ‘그 종은, 나는 왜 그랬을까?’



시정훈(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해성대(5공비전) 상당 주임

제 1 특 시
회 답 송
제 2 특 시
복음 보호송

잠언 31,10-13,19-20,30-31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1테살 5,1-6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복 음
영 성 제 송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마태 25,14-30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홍필주 필립보



성인명: 홍필주 필립보 (洪弼周 Philip)

신분: 양반, 순교자

활동연도: 1774-1801년

홍필주(洪弼周) 필립보는 충청도 덕산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1790년 경 이존창 루도비코 곤자가에게 교리를 배워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아명은 '문갑'(文甲)이다.

홍 필립보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천주교 신앙을 아주 싫어하였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교리를 배워 입교한 계모 강완숙 골롬바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을 실천해 나갔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아들 홍 필립보가 입교한 뒤로는 자신이 이해한 교리를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으며, 홍 필립보 또한 어머니의 열렬한 덕행을 모범으로 삼았다.

이듬해에 신해박해를 겪고 나서, 홍 필립보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따라 한양으로 이주하였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여전히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따라서 고향 집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한양으로 올라온 홍 필립보는 가족과 함께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1795년 5월에 어머니 강 골롬바가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피신시키자, 이때부터 신부의 복사가 되어 여러 가지 일을 돕기 시작하였다. 또 홍익만 안토니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함께 교회 일을 도왔다.

이후, 홍 필립보는 자신의 집이 조선 교회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자, 주 야고보 신부와 신자들의 안전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이곳 저곳으로 집을 옮겨 다녔다. 또 한편으로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회장을 비롯하여, 교회 지도층 신자들과 교류하면서 신심을 쌓아 갔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이름은 어머니 강 골롬바와 함께 점차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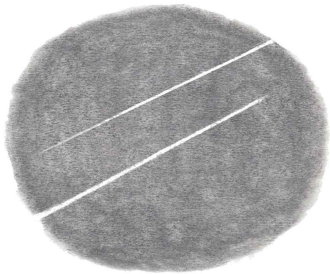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난 뒤, 홍 필립보의 이름은 일찍부터 박해자들의 명단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박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포졸들이 그의 집으로 들이닥쳤고, 곧바로 그와 그의 어머니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을 체포하였다. 포도청으로 끌려간 홍 필립보는, 형벌을 받으면서도 주문모 야고보 신부의 행방과 그동안의 행위를 조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나 혹독한 형벌이 계속되면서 그의 마음은 차츰 약해지게 되었다. 이때 조사를 받으러 가던 어머니 강 골롬바가 그를 보고는 “필립보야, 너는 어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머리 위에 임하시어 비추고 계심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느냐?” 하고 권면하였다. 이에 그는 곧장 마음을 돌이켜 박해자들을 향해 ‘절대로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고백하였다.

이후 그의 어머니는 먼저 순교하였지만, 홍 필립보는 오랫동안 옥에 갇혀 고통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조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며, 마침내는 동료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런 다음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1801년 10월 4일(음력 8월 27일)로, 그의 나이는 27세였다.

복 음 록 상

- 베영길(비드로) 신부 / 예수회

불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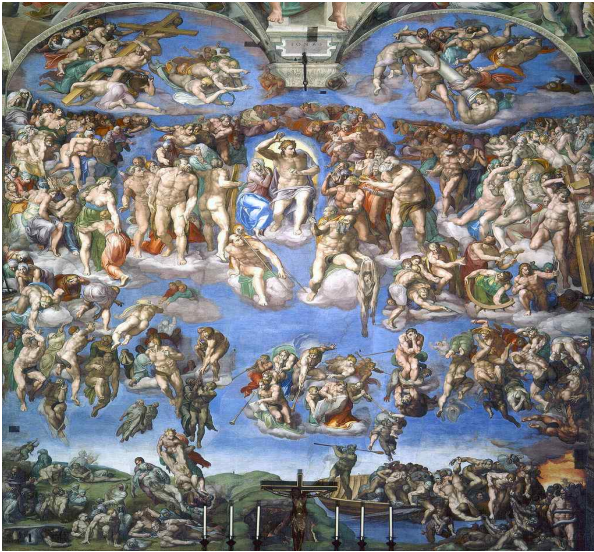
내가 원하는 것과
그가 원하는 것이
묘한 차이를 두고
비겨갈 때.

그 마음에 흐르는 적막이
왜 그리 싫은지.

불편한 일이다.
내 것을 편히
더 가질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에서 나오는
불편함.

상화이야기

최후의 심판



우선 중앙의 예수님을 살펴보자. 다른 인물보다 더욱 크고 긴장하게 그려진 예수님은 오른손을 들고 당신의 왼쪽에 있는 죄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들어 올려진 그 팔과 단호한 표정은 죄인들을 마치 때려내치실 듯이 보인다. 이는 자애와 사랑의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엄단과 가차 없으신 예수님처럼 보이며, 왼손이 가리키는 곳은 당신이 창에 찔리신 상처이다.

그 옆에 그려진 성모님은 선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마치 당신도 예수님이 악인들을 단죄하시는 데에는 어떠한 중재도 더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듯한 모습이다.



예수님의 바로 아래 (우리가 보는 방향) 왼쪽에는 라우렌시오 성인이 자신이 고문을 당한 석쇠(석쇠에 산 채로 구워지는 고문을 당했다)를 들고 있으며, 그 옆에는 산채로 껍질이 벗겨지는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 바르톨로메오 성인이 자신의 껍질을 왼손에, 오른손에는 수난 도구인 칼을 들고 있다.

여기서 미술사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화상의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바르톨로메오 성인이 들고 있는 껍질의 얼굴이 미켈란젤로의 자화상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 주에 계속>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33주일: 헤시 이용호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군중앙 주교좌 성당 미사
- 때: 11월 15일(주일) 11:00
- 「2020 한반도평화나눔포럼」
- 때·곳: 11월 20일(금)~21일(토), 제주 해비치호텔

◆ ‘군중의 시간’ 인내

 때: 주일 오후 4시 - 5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군중교구, 평화방송 홈페이지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빌사후를 따라” -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요한 21,19)